

냉면값, 코로나 전보다 30% 올랐다...아이스크림도 상승세

한국물가정보, 10개 지역 냉면 가격 조사
 평균 1만750원...전년보다 가격 7% 올라
 아이스크림 20~30% ↑ ...“더 오를 가능성”

여름철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냉면 가격이 전년보다 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전문가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는 서울 10개 지역 대표 냉면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만750원으로 전년보다 7%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29.5% 급등했다. 업체별로 보면 8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됐다. 이번 조사 업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서울 중구 한 업체에서는 평양냉면을 1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냉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면의 주재료인 메밀 가격의 가파른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 메밀의 경우 1kg당 1만원으로 5년 전 가격인 6500원보다 53.8% 올랐다.

국산 메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재로 사용되는 수입상 메밀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입 메밀 가격은 1kg당 4383원으로 5년 전 2840원보다 54.3% 올랐다.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식초 900ml(3190원)는 109.9%, 청오

이 2kg(8000원)는 128.6%, 소금 1kg(1890원) 62.9% 등 대부분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배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다. 아이스크림 역시 주요 3사(롯데웰푸드·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모두 지난해 대비 일반 소매점 기준 100~200원씩, 약 20~30%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직접적인 식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가공비, 물류비 등이 모두 인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빙과류 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유와 설탕 가격이 계속 상승세다. 설탕은 2018년 대비 21.5% 올랐고, 우유는 14.7% 상승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국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올 여름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내년까지 주요 원당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대두되며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하반기에 또다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무선청소기 ‘로보락 다이애드 프로’ 출시



청소기전 기업 로보락은 강력한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가 모두 가능한 습건식 무선청소기 ‘로보락 다이애드 프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보락 다이애드 프로는 지난 2021년 출시한 로보락 다이애드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세계 최초 2개의 듀얼 모터로 구동되는 3개의 멀티 롤러(브러시)를 탑재하고 1만7000Pa(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과 마찰력으로 마른 먼지는 물론 젖은 얼룩까지 제거한다.

이 제품은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셀프 클리닝에 자동 열풍건조 시스템까지 갖춘 것이 큰 특징이다. 청소가 끝나면 더러워진 롤러가 양방향으로 교차하면서 자동

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온 건조해 악취를 방지한다. 셀프 클리닝과 건조 기능은 스마트폰 앱 연동이 가능하다.

제품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멀티 롤러와 헤드 양쪽을 빈틈없이 채운 에지 투 에지 롤러 디자인으로 자칫 놓칠 수 있는 양쪽 가장자리의 1mm 공간 내 먼지까지 빨아들인다. 180도 회전이 가능한 엣지 클리닝 헤드를 장착해 각도의 제한 없이 공간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다.

바닥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센서도 갖췄다. LED(발광다이오드) 화면으로 오염도를 알려준다. 물걸레로 닦아내기 번거로운 오염물도 롤러가 번갈아 문지르면서 99% 이상 제거해준다.

로보락 다이애드 프로는 기존 모델 대비 30% 높은 배터리 효율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완충 시 사용시간이 기존 35분에서 43분까지 늘었다. 최대 300㎡(약 90평)의 청소 범위를 딥 클리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수 탱크(900ml)와 오수 탱크(770ml) 용량이 넉넉해 한 번 리필 시 20회 이상, 최대 600번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 무게는 4.8kg다.

뉴시스

최저가 편의점 라면은? 380원 CU ‘라면득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라면 가격 관련 언급 이후 1000원 이하 제품의 가격 인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밀 가격과 연동해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제조업체들은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라면 가격은 비교적 저가인 자체 브랜드(PB) 상품부터 수천원에 이르는 프리미엄 상품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라면 가격 인하나 식품 업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저가 상품들의 가격 인하 여부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커진 모습이다.

현재 가장 저렴한 봉지라면은 편의점 CU에서 파는 ‘라면득템’이다. CU의 PB브랜드 HEYROO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개당 380원 수준에서 팔린다.

이마트 PB 제품인 노브랜드 라면 한그릇은 개당 396원 팔로 팔리고 있다. 홀플러스가 내놓은 국민라면은 개당 500원 팔로 판매 중이다.

이마트24의 민생라면은 개당 550원 팔린다. 이외 오투기 스낵면과 농심 안심탕면이 각 850원, 900원으로 1000원 이하 제품들에 속한다.

컵라면 중에선 이마트 노브랜드 육개장이 개당 580원 팔로 저렴하다. 또 이마트24 민생컵라면이 800원으로 1000원보다 싼 값에 팔린다.



이외 육개장 사발면, 김치 사발면, 짜파게티 범벅 소컵, 팔도 도시락, 진라면 매운맛 소컵 등이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선 1000원 이하 제품들에 대한 인하 여력은 매우 적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물가 대응 차원에서 내놓은 저마진 상품이 많은 데다 인상을 보류한 경우도 있던 것이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더 내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 결정이 이뤄져 내리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PB 라면 가격 인하는 힘들어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여러 차례 보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들도 인하를 선택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인상 요인은 많은데 압박이 있으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잘나가는 수입차시장...“가격도, 점유율도 모두 커졌다”

올해 1~5월 1억원 이상 수입차 2만8782대 판매



지난달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줄어든 가운데 1억원 이상 고가 모델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희소성이 높은 초고가 차량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며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전년 동기 4.0% 감소한 10만3933대로 집계됐다. 이중 판매 가격이 1억원 이상인 수입차는 2만 8782대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수입차 4대 중 1대가 1억원이 넘는 고가 차종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전체 판매량에서도 1억원 이상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10.2%에 그쳤던 1억원 이상 수입차 비중은 2018년 10.9%, 2019년 11.84%, 2020년 15.71%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23.59%까지

늘더니 지난해에는 25.36%를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가화가 가장 눈에 띈다. 벤츠의 1억원 이상 차량 판매 대수는 올해 1월 1212대에서 지난달 2840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누적 판매 대수는 1만1611대로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고가 차량을 판매했다. 같은 기간 BMW의 1억원 이상 차량 판매 대수는 1274대에서 1602대로 증가해 누적 판매량 7206대를 기록했다.

◆초고가 슈퍼카도 잘 나간다...두 자릿수 성장세

슈퍼카 브랜드의 약진도 눈여겨 볼 점이다. 포르쉐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5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포르쉐는 지난 1월 1212대를 시작으로 2월 2085대, 3월 2488대, 4월 2986대를 판매했다. 지난해에는 전월 대비

4.8% 감소한 2840대를 판매했으나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벤츠의 292대(11%), 람보르기니 143대(26%), 롤스로이스 111대(10%)도 전년 대비 판매량이 두자릿수 성장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슈퍼카의 주 고객층이 고소득자인 만큼 경기와 무관하게 국내 슈퍼카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초고가 수입차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수입차 브랜드들도 국내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브랜드마다 가격이 더 비싼 차량을 출시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3대 명차로 꼽히는 롤스로이스는 지난 16일 브랜드 최초 전기차인 ‘스펙터’를 아시아·태평양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했다. 판매 가격이 최소 6억2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고가 차량으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전 주문량을 기록했다. 이 차량은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고객에 인도될 예정이다.

아이린 니케인 롤스로이스모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자 롤스로이스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롤스로이스의 국내 판매량은 2019년 161대, 2020년 171대, 2021년 225대, 2022년 234대다.

페라리는 지난 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프론트 엔진에 소프트톱(soft-top)을 장착한 컨버터블 스포츠카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를 선보였다. 신차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3억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람보르기니는 오는 23일 브랜드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모델 ‘레부엘토’를 한국 시장에서 선보인다. 레부엘토의 대당 가격은 7억9500만원으로 이미 2년치 주문량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기자

‘1년내 계약 만료’ 전세보증금 302조원 ‘역대 최대’...역전세 빨간불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커질수도 임대인 상환능력 살피는 등 대비해야

향후 1년간 전국에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02조원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전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은 149.08조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 거래 총액 153.09조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고치다.

주택 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 거래 총액은 아파트가 228.38조원으로 전체 전세 거래 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42조원(11.1%), 단독·다가구 22.81조원(7.5%), 오피스텔 17.56조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세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강서구·강동구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성남시 분당구가 9.17조원으로 가장 많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어 화성시 6.55조원, 남양주시 5.73조원, 용인시 수지구 4.91조원, 부천시 4.59조원 순이다.

함양진 주택 빅데이터팀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는 않았지만 전세 거래 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값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